

# 學會와 나

학회가 創立된 것은 1947年 7月 이었다. 4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해방, 독립, 6·25사변, 정치변동 및 과학기술의 急進化 등등의 모진 세파 속에서도 학회는 現位置로 성장하여 왔다. 이는 선배님들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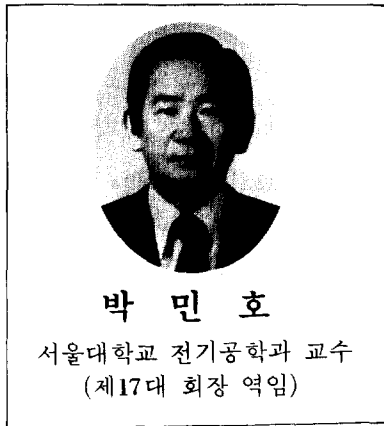
내가 사회의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한 때가 전기학회 창립년도와 같은 시기였으니 이때부터 학회와의 억지인연이 맺어진듯 하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시작이 가장 힘든 것이고, 학회도 역시 초창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회원의 數나 운영자금등 모든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 초대회장 尹日重氏를 모시고 일을 하신 임원들의 노고는 오늘날 높이 평가를 받을만 하다.

처음 전기학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1960년 전철화 조사위원회 위원 모임이었다. 당시 나는 제일 年少委員이었는데, 소공동에 있었던 이천 전기회사의 구석진 방이 전기학회 사무실이었다.

이때의 회장이 故 李宗日 博士이고, 위원장이 禹亨嘯教授였다. 오늘날 지하철, 전철이 수송수단으로 큰 몫을 하는 것을 볼때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조사위원회였다고 여겨진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전기학회 임원진의 대부분이 전기회사 3社



(電業, 京電, 南電), 상공부 및 산업계 출신들이었으니, 오늘날 학회의 주축이 學界인것과는 대조적이었다. 1963년 학회이사회에서 理事(지금의 평의원)로 선출되어, 우형주 회장때부터 이승원 회장때까지 편수 및 조사이사직을 맡았다.

편수를 담당했을 때는 학회지가 학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또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받는 회원과 학회와의 접촉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라 생각되어 회지의 내용, 시대조류의 적합성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동안 발행한 학회지를 연도별로 제작하여 놓고보니, 연륜도 연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것이라는 데서 외국학회지보다 애착심을 느꼈다.

학회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의 원천을 든다면 조사연구분야이다. 학계, 산업계의 문제점 해결, 기

술적 방향지시 및 평가의 자료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학회가 대외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아진다.

調査理事를 맡아보는 동안 「서울 시내의 전압 변동」에 대해 연구한 것을 조선일보가 '국산 가전제품의 성능저하는 사용전압의 변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신문기사에 학회조사보고를 인용하는 바람에 전력회사와 옥신각신한 일도 있었다. 결국 회사측이 학회조사 Data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다.

또한 '調査'라는 단어가 아무데서나 쉽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일도 '調査'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사부서에서 맡게 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된 일인듯하다.

최근 과학기술의 진보는 현저하고, 주목할만한 것이 매우 많다. 핵융합, 초전도 등을 둘러싼 에너지 관련기술, 光通信 등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보관련기술, 컴퓨터 관련기술, 반도체 관련기술 그리고 로봇기술 등등 분야별의 확대 또는 기술의 고도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40주년을 맞이한 전기학회의 사명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전기학회의 무궁한 변신과 발전을 기대해본다.